

음악분석, 그리고 분석을 위한 글쓰기

- 음악분석을 논술중심전공교과(WAC)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

최원선

1. 들어가면서

이 연구는 음악이론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음악분석’을 논술중심전공교과(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WAC)²⁾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논술중심전공교과’란 전공 영역과 글쓰기를 연계해 전공과 관련된 담론의 방식들을 익히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³⁾으로, 이는 전공 교과에 글쓰기를 첨가하는 수준을 넘어 글쓰기를 매개로 교과의 커리큘럼 자체를 변형시키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글쓰기 과정을 통한 전공 지식의 심화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전공 분야에 대한 ‘담화 공동체’로서의 특성과 체계를 익히고 더 나아가 의사소통 능력, 자기표현 능력 등의 개발에 그 목적⁴⁾을 둔다.

21세기의 교육은 학문 간(間)을 ‘가로지르는’ 융·복합적 측면에서의 교수법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그 까닭은 이 시대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융·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시대적 요구들과 더불어 교육제도 및 정책들에 따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1)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361).

2)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WAC)은 우리나라에서 범교과 글쓰기, 전공연계 글쓰기, 논점중심전공교과, 글쓰기 기반과정, 교과연계 글쓰기 등으로 쓰인다. 이 연구에서는 전공에 관한 ‘논술’과 ‘교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논술중심전공교과’를 WAC에 대한 번역어로 정한다.

3) 미국의 경우, 논술중심전공교과는 이미 40 여 년 전부터 도입, 시행된 대학의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운용되고 있는 교육 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Writing_Across_the_Curriculum [2018년 10월 1일 접속] 참조.

4) 논술중심전공교과의 국내 도입을 주창한 원만희(2009)의 연구에서는 학문적 목적을 위한 글쓰기 교육이 특정한 학문 분야의 ‘탐구 과정 전반’을 통해 구현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원만희, “왜 범교과(WAC) 글쓰기인가?,” 『철학과 현실』 82 (2009), 161-175 참조.

것이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볼 때, 이 연구는 학문적 전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피하기 위한 융·복합 시대의 음악이론 교육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교수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글쓰기 집중 교과목(Writing Intensive Course: WI)으로서 ‘음악분석’의 운용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고 음악이론 분야의 논술중심전공교과 교수·학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선행연구 고찰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운용은 글쓰기 교과와 전공 교과를 결합하여 운용하는 방식과 특정 글쓰기 집중 교과목을 지정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후자의 경우인데, 글쓰기 집중 교과목과 일반 교과목과의 차이는 ‘수업의 형태’에 있다. 즉 글쓰기 집중 교과목의 경우, ‘글쓰기’를 수업 진행 방식으로서 제시할 따름이며 근본적인 교과목상의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행 상의 편리성이 미국의 사례들⁶⁾을 보면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성공 여부가 글쓰기에 관한 교수자의 교수법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이 시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먼저, 이 연구의 기본 방향 제시를 위해 ‘글쓰기’와 ‘음악’의 상관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두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겠는데, 하나는 음악 분야에서 선행된 글쓰기에 관한 연구들⁷⁾에서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글쓰기 분야에서 음악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⁸⁾에서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중등교육에서 우세했는데, 이지현(2003)은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수업이 음악적 경험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며 기능 활동 위주의 음악교육을 보완해

5) 우리나라에서의 운용 사례들에 관해서는 이은숙 외 4인(2015)의 연구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숙 외 4인, “계명대학교 <전공 글쓰기>의 교수법 개발을 위한 운용과정 분석 및 제언,” 『교양교육연구』 9/4 (2015), 318-319 참조.

6) 논술중심전공교과에 대한 미국에서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배식한(2012)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배식한, “전공연계글쓰기(WAC)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미국 WAC 프로그램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교양교육연구』 6/3 (2012), 598-615 참조.

7)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C%9D%8C%EC%95%85+%EA%B8%80%EC%93%B0%EA%B8%B0&x=24&y=26> [2018년 10월 1일 접속].

8)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writing+across+curriculum&x=20&y=21> [2018년 10월 1일 접속].

중 하나의 방안임을 서술하고 있다.⁹⁾ 김선미(2012)는 중등 음악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활동 영역에 대한 글쓰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¹⁰⁾ 김유진(2014)은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글쓰기가 음악이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기적인 기억을 돕는다는 결론을 제시한다.¹¹⁾ 마지막으로, 김향정(2014)은 교사들을 위한 수업비평문을 유형화된 기준과 형식으로서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쓰기의 틀을 기술(모방적 양식), 분석 및 해석(표현적 양식), 평가(관습적 양식)에 두고 있다.¹²⁾

후자의 경우를 보면, 김지혜(2012)는 음악대학 교양 글쓰기의 수업 사례를 제시하며 전공에 따른 실용적인 글쓰기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한다.¹³⁾ 홍나래(2013)는 음대생이 갖는 글쓰기의 부담감을 지적하며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 모델 개발을 제안한다.¹⁴⁾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특정 글쓰기 주제를 음대생들에게 맞춘 지도방안과 사례연구로 기본 글쓰기 과정에 실용적 글쓰기 과정을 접목한 교양 차원의 글쓰기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이 음악 분야와 관련된 고등 교육에서의 글쓰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선행연구의 범주를 계열 글쓰기¹⁵⁾, 전공 글쓰기¹⁶⁾로 넓혀보면, 이는 음악 분야를 보는 ‘글쓰기’에 관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이공계열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가장 활발했는데, 그중 김현정(2015)의 연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이공계열의 글쓰기 지도방안을 제시하며 전문적인 글쓰기가 전공 영역의 담당 교수에 의해 지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¹⁷⁾ 또한 예체능 계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실기 중심의 대학 교과과정에서 오는

9) 이지현,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 수업 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0) 김선미, “학문적 글쓰기를 활용한 중등 음악 수업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41/2 (2012), 125-146.

11) 김유진,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 바이올린 교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2) 김향정, “수업비평의 관점에서 음악수업 ‘읽기’ 및 ‘쓰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9 (2014), 65-85.

13) 김지혜, “예체능계열의 실용 글쓰기 교육 방안 -가천대학교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4 (2012), 67-94.

14) 홍나래, “말하기와 연계한 글쓰기 수업의 효과와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우리말과 글쓰기> 음대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연구』 31 (2013), 5-22.

15)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A%B3%84%EC%97%B4+%EA%B8%80%EC%93%B0%EA%B8%B0&x=25&y=19> [2018년 10월 1일 접속] .

16)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C%A0%84%EA%B3%B5+%EA%B8%80%EC%93%B0%EA%B8%B0&x=33&y=15> [2018년 10월 1일 접속] .

공통된 문제인식과 해결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 예로, 강성숙(2014)은 예체능 계열의 글쓰기는 글쓰기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면서 동시에 인문적 소양과 깊이를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자료의 활용을 제안하며,¹⁸⁾ 양태영(2016)은 예체능 계열 대학생들과 그 전문가들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계열별 특징을 밝히고 이를 반영한 쓰기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를 제안한다.¹⁹⁾ 끝으로, 이은숙·문동욱(2015)의 스포츠마케팅과의 전공 글쓰기 수업모형을 제시하는데 이는 예체능계 글쓰기에 관한 ‘전공 밀착형 교과목 연구’라는 점에 방점을 둘 수 있다.²⁰⁾

이와 같이 국내에서 음악대학의 전공 교과목을 대상으로 논술중심전공교과의 활용을 시도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뿐만 아니라 전공 영역과 관련된 글쓰기에 대한 사례연구의 폭도 넓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은 확실한데, 그것은 교육의 수단으로써 글쓰기가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으며 전공의 영역에서나 교양의 영역에서나 구분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관점은 ‘논술중심전공교과’가 지향하는 진정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21세기의 교육환경에 맞춰 음악이론 교육의 영역에서도 글쓰기를 통한 새로운 교수적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음악분석을 통한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글쓰기와 음악분석의 개연성

이 연구는 음악분석의 산물이 ‘글’ 임에 착안하여 학습도구로서의 ‘글쓰기’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글쓰기의 과정이 먼저 주어진 과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내적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글’의 형태로 아이디어를 정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리되는 아이디어들은 사고 체계의 개선을 도우며 연속적인 과정으로 반복되는 글쓰기의 선순환이 새로운 지식의 생성을 돕게 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에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첫째 논술중심전공교과의 필요성과 그 효과들의 필연성을 전제로 한다.²¹⁾ 둘째 글쓰기 전반이 중심축이 되는 글쓰기 집중 교과목으로

17) 김현정, “융복합시대 이공계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 『대학작문』 14(2015), 131-161.

18) 강성숙, “예체능 계열 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 『溫知論叢』 41(2014), 335-368.

19) 양태영, “예체능계 대학생의 학술적인 글쓰기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위한 텍스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2016), 541-562.

20) 이은숙·문동욱, “〈전공 글쓰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공별 수업모형 ‘스포츠마케팅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9/3 (2015), 513-537.

서의 음악분석, 즉 음악분석의 ‘전공 밀착형 교육 방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전개는 글쓰기 과정과 음악적 심화학습의 내용을 접목할 때 역량 도모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과목이 ‘음악분석’이라는 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음악이론, 음악분석,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관계성’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우선 21세기 음악학의 판도를 고쳐 읽는데 일조한 죠셉 커먼(Joseph Kerman, 1924-2014)²²⁾의 *Contemplating Music* (1985) 중 일부를 들여다보면, 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음악이론과 음악분석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새 그로브사전(*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에 따르면, 이론은 ‘기본적으로 음악의 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 설명하자면, 음악이론이란 무엇이 음악을 음악이게 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이론이 다루는 주제의 영역은 음계와 코드들의 형성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음들을 높고 낮게 배분하는 과정, 예를 들면, 대위법이나 12음계 혹은 음렬 작입, 그리고 음악적 형식의 원칙과 심지어는 기호학까지 포함한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음악이론은 언어학에서 다루는 속어, 문법, 구문, 그리고 수사학에 해당하는 음악적 특성들을 다룬다. 그리고 기술적인 과정으로서의 음악분석은 어구의 분석, 언어적 환원법, 그리고 텍스트의 설명 등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²³⁾

커먼은 위의 글과 같이 음악이론이 갖는 언어학적 연관성과, 또 음악분석이 그것의 기술적 과정에서의 신물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커먼이 이 글을 쓴 당시 『새 그로브사전』의 인용은 1980년 판이다. 그러나 커먼의 이 같은 시각은 『새 그로브사전』의 2001년 판에서 음악이론가 토마스 크리스천슨(Thomas Christensen)에 의해 더욱 구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음악이론이 구조와 행동의 일반화된 ‘서술’을 제공하며 이 이론들은 단일 작품에 적용되거나 역사적 양식, 장르 혹은 작품의 종류 등을 설명하거나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며 음악분석은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변증법적 대응으로서 기능적 수행을 보여준다고 밝힌 부분에서 그러하다.²⁴⁾ 다시 말해 음악분석에는 음악의 일반화된 서술에 반한 그것의 구체화된 제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21) 국내에서의 논술중심전공교과에 관한 연구들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안상희(2015)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상희, “범교과적 글쓰기(WAC)를 통한 대학 글쓰기 교육,” 『작문연구』 24 (2015), 113-123 참조.

22) 음악학자 채현경은 21세기의 음악학을 고려하는데 있어 커먼에 대한 언급이 필연적인 것임을 지적한다. Joseph Kerman, “1990년대 음악학,” 『새 음악학: 해체, 페미니즘, 그리고 통합』, 채현경 편저(서울: 궁리, 2007), 71 참조.

23) Joseph Kerman, 『음악을 생각한다』, 채현경 번역 (서울: 궁리, 2005), 16.

24) 채현경 편저. “또다시 음악학이란 무엇인가,” 『새 음악학: 해체, 페미니즘, 그리고 통합』, 254.

음악이론가 김연(2005)도 『새 그로브사전』의 정의에 주목한다.²⁵⁾ 즉 『새 그로브사전』의 ‘분석’ 항목을 보면, 1980년 판에서는 “음악구조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성요소들로 나누고 그 구조 안에서 구성요소들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으로 풀이한 것에 비해 2001년 판에서는 여기에 “음악의 구조를 해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라는 설명이 더해진 까닭이다. 이에 대해 김연은 음악분석의 범위에는 이론의 객관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을 적용한 분석들과 더불어 (표1)과 같이 분석자의 주관적 견해를 인정하고 고려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표1) ‘분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

| | |
|-----------|---|
| H. Keller | 단순한 묘사와 분석을 혼동하지 말 것 |
| J. Dubiel | “단순한 묘사”도 분석 |
| 허영한 | 음악분석의 핵심은 작품의 특유함을 찾아내는 것 |
| M. Guck | 분석가가 자신과 작품의 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하나의 이야기(fiction) |

음악이론가 송무경(2016) 역시 분석에 관한 『새 그로브사전』 어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²⁶⁾ 그러나 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분석자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에 대한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즉 음악분석이란 ‘분해’하고 ‘탐구’ 한 후에 ‘구조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작업’이며, 이 분석의 표출 형태가 바로 ‘글’(분석 글)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음악분석의 중심에는 글이 있고 분석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작가가 되는 것이며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작품의 청취 경험에 대해 공감하고 동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풍부하고 조밀하게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풀이한다. 즉 그의 논리에는 작곡이 음표로 표출되는 창작이라면 분석은 글로 표출되는 창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덧붙여 송무경은 이러한 분석 글에 대한 글쓰기 전략²⁷⁾으로, 첫째 음악 자체에 대한 관찰과 묘사에서 시작할 것, 둘째 음악적 요소의 전형적 측면에서부터 벗어나는 현상에 주목하며 서술할 것, 셋째 음악적 사건에 대한 묘사와 분석이 자연스럽게 조화되게 할 것, 넷째 경험적인 언어와 음악이론에서 통용되는 전문적인 어휘가 고루 사용되게 할 것, 다섯째 서술 시점이나 분석자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로 글의 단조로움을 피할 것, 마지막으로 특정한 포인트에 집중한 분석 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그는 분석 글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하는 문제, 다시 말해 ‘소

25) 김연, 『음악이론과 분석』 (서울: 심설당, 2005), 47-50.

26) 송무경, 『음악논문작성법』 (서울: 음악세계, 2016), 60-62.

27) 송무경, 『음악논문작성법』, 241-243.

통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분석은 노련하게 훈련된 글쓰기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글쓰기에 관한 훈련은 음악분석을 위한 학습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음악분석에서 '전달력 있는 글쓰기'에 대한 훈련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이 음악분석은 분석의 과정이 '글'로서 표현되는 글쓰기의 한 측면이며,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서술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시도는 '음악 분석 교과에서의 '무엇을', 논술중심전공교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개연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음악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기 위해 음악분석은 글쓰기의 원리와 방법, 또 그 원리와 방법의 훈련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교육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4. 음악분석을 논술중심전공교과로 보기

선행된 연구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운용은 전공 영역에서 특정 교과목을 지정하여 글쓰기 집중 교과목으로 운용되는 사례보다는 오히려 전공 글쓰기의 범주 내에서 기초 글쓰기 과정에 전공의 일부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우세하다. 그러나 글쓰기 능력의 함양이란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한 결과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 능력의 함양을 위한 글쓰기란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학습의 기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때 글쓰기와 학습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며, '글쓰기'와 '음악분석' 역시 이 같은 관계에서 해석 가능할 것이다.

4.1.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구상

원만희(2010)는 논술중심전공교과의 강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하고 있다.²⁸⁾ 첫째 글쓰기는 사고를 명료하게 하고 확대시키고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둘째 글쓰기 중심의 수업 형태가 교육 및 학습 방식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셋째 글쓰기 능력은 커리큘럼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므로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수업 운용은 '글쓰

28) 원만희, "전공연계 글쓰기(WAC)를 위한 교육 기획," 『수사학』 13 (2010), 195-196.

기를 통한 수업(teaching with writing)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글쓰기를 통한 학습’(learning with writing)으로 심화 학습이 가능해지며, 학문적 목적에 의해 글을 쓰게 되므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게 되며 특정한 담화 공동체의 글쓰기 규약과 양식상의 특징들을 익히게 된다고 본다. 또한 논술중심전공교과에서 활용되는 유형은 ‘전공 글쓰기’(Writing In Discipline: WID)와 ‘학습을 위한 글쓰기’(Writing To Learn: WTL)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주된 목적을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에 두고 글쓰기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반영한 것이며 후자는 이를 학습 양식으로서의 교육적 기능에 두고 글쓰기가 갖는 교육적 기능을 반영한 것이다.²⁹⁾ 이에 따른 내용은 (표2)와 같이 정리된다.

(표2)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유형³⁰⁾

| | | 전공 글쓰기 | 학습을 위한 글쓰기 |
|----------|---------|--|--|
| 수업 구성 요소 | 글쓰기의 특징 | · 형식적 글쓰기 | · 비형식적 글쓰기 · 탐구적 글쓰기 |
| | 피드백 | · 개별, 그룹별 상담 (개요 상담, 초고 수정 등) | · 개인별 피드백 불필요 · 전체 강평 |
| | 과제종류 | · 기말보고서 · 연구보고서 · 주석 달린 참고 문헌 목록 · 중요 텍스트 요약 및 논평 · 보고서 개요 | · 그날의 강의 요약 · 퀴즈에 답변하기 · 학습일지 · 독서일지 · 이메일 질문하기 · 에습 메모 |
| | 평가 | · 과정 평가 · 최종 결과물 평가 | · 비평가 · 제출 여부 확인 |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면, ‘전공 글쓰기’ 및 ‘학습을 위한 글쓰기’로서의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유형별 특징은 (표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9) 원만희, “전공연계 글쓰기(WAC)를 위한 교육 기획,” 201-203.

30) 원만희, “전공연계 글쓰기(WAC)를 위한 교육 기획,”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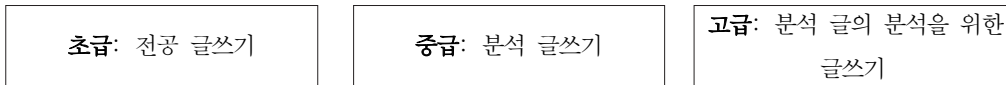
(표3)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유형별 특징

| 유형 | 시행 목표 | 주요 내용 | 비고 |
|------------|---|---|----------------------|
| 전공 글쓰기 | ·글쓰기를 통한 전공 분야로의 저변 확대 ·담화 공동체로서의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 ·학습자 중심의 수업 ·학술적·비판적 사고력 함양 | ·글쓰기에 관한 원리와 방법의 학습 ·글쓰기 양식과 전공 영역과의 연계 학습 | 특정 주제나 내용에 초점을 둔 글쓰기 |
| 학습을 위한 글쓰기 | ·글쓰기를 통한 전공 심화 학습 ·담화 공동체로서의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증진 ·능동적 학습 방식의 수업 ·학술적·비판적 사고력 증진 | ·전공 교과 내용에 관한 학습과 글쓰기의 통합적 시행 | 전공 교육의 수단으로써의 글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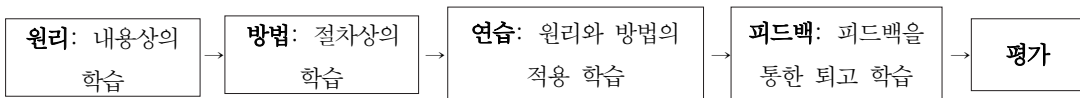
이러한 구분은 글쓰기를 통한 교육적 기대효과와 목적에 따라 그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체계적인 적용을 고려할 때, 탐구적 목적을 위한 ‘학습을 위한 글쓰기’로서의 음악분석은 ‘전공 글쓰기’를 통한 형식적 글쓰기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쓰기가 음악분석의 학습 도구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유(思惟)의 한 형태로서의 글쓰기 과정이 ‘주제 설정-자료 조사-자료 분석 및 해석-개요 작성-쓰기-퇴고’라는 글쓰기의 기본 과정과 음악의 분석을 유도해 내는 기본 과정과 유사하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글쓰기의 음악분석 교과과정으로의 적용은 (도표1)과 같은 수준별·단계별 구상에 의하며, 수준별 구상의 각 과정(초급·중급·고급)은 단계별 구상의 순차적인 학습 차례(원리-방법-연습-피드백-평가)를 따르도록 한다.

(도표1)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구상

· 수준별 구상



· 단계별 구상



4.2. 글쓰기 및 음악분석의 교과 운용 현황

(도표1)에서 제시한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구상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대학에서 이 두 교과에 대한 운용 현황을 검토하므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글쓰기 및 음악분석과 관련된 교과들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 교육환경에 대해 고찰하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논술중심전공교과가 ‘학습을 위한 쓰기’(writing to learn)와 ‘쓰기를 위한 학습’(learning to write),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며,³¹⁾ 대학마다 교과에 대한 교육목표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여건 등이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글쓰기와 음악분석의 교과 운용에 대한 파악은 연구의 실질적인 방향성 제시를 위한 무엇보다 우선적인 일이 될 것이다.

(표4)는 2018학년도 기준, 글쓰기 및 음악분석 관련 교과들³²⁾이 운용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이 표본은 지난해 3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즈 고등교육(THE: 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아시아 대학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15개교³³⁾ 내에 음악대학 및 음악학과를 포함하고 있는 9개교(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울산대, 부산대, 세종대)를 대상으로 한다.

(표4) 글쓰기 및 음악분석의 교과 운용 현황

| 대학명 | 글쓰기 관련 교과 | | 음악분석 관련 교과 | | | |
|------------|------------|------|----------------------------|-----------------------|------|------------------------|
| | 과목명(학점) | 구분 | 전공 | 과목명(학점) | 구분 | 비고 |
| 서울대 34) | 글쓰기의 기초(3) | 교양 | 성악/관악/현악 /피아노/작곡/ 이론 | 음악분석1(2), 음악분석2(2) | 전공필수 | 전공별 분반 |
| | | | 관악/피아노/이론 | 음악분석3(2), 음악분석4(2) | 전공필수 | |
| 연세대 35) | 글쓰기(3) | 공통기초 | 교회음악·성악/ 관현·피아노/작곡 | 형식과 분석(3) | 전공필수 | 전공에 따른 상이한 분석 |

31) 안상희, “범교과적 글쓰기(WAC)를 통한 대학 글쓰기 교육,” 123.

32) 글쓰기 및 음악분석 관련 교과들에 대해서는 교과목 명에 “글쓰기” 및 “분석”을 포함하는 경우로 국한한다. 예를 들어, 글쓰기 관련 교과에는 “우리말과 글쓰기”는 포함시키나 “말과 글”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음악분석 관련 교과에는 “형식과 분석”은 포함시키나 “형식론”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33)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47> [2018년 10월 1일 접속].

| | | | | | | |
|-------------|--|--------------------------|-----------------|---|-------------|-------------------------------|
| | | | 교회음악 | 합창음악분석(2) | 전공선택 | 교과 개설 |
| | | | 작곡 | 현대음악분석(3) | 전공필수 | |
| 경희대 36) | 글쓰기1(2), 글쓰기2(2) | 기초교과 | 성악/관현/ 피아노 | 기초화성학 및 음악분석1(2), 기초화성학 및 음악분석2(2) | 전공기초 | 화성학 과 분석 교과가 통합 |
| | | | 기악 | 고급화성학 및 음악분석1(2), 고급화성학 및 음악분석2(2) | 전공선택 | |
| | | | 작곡 | 작품분석1(2), 작품분석2(2) | 전공선택 | |
| 한양대 37) | 창의적 글쓰기(2), 비판적 글쓰기(2) *영어 | 핵심교양-글 로벨 언어와 문화영역 | 피아노 | 연주를 위한 음악분석1(2), 연주를 위한 음악분석2(2) 피아노음악형식과 분석1(2), 피아노음악형식과 분석2(2) | 전공심화 | 성악, 관현악 전공에 개설 안됨 |
| | 디지털저널리 즘과 글쓰기(3) | 핵심교양- 인문과 예술영역 | 작곡 | 음악형식과 분석1(2), 음악형식과 분석2(2) | 전공심화 | |
| 이화여 대38) | 우리말과 글쓰기(3), 고전읽기와 글쓰기(2) | 사고와 표현 | 건반/관현/성악 /작곡 | 조성음악분석1(2), 조성음악분석2(2) | 전공기초 | 전공별 분반 |
| | | | 작곡 | 20세기음악분석1(2), 20세기음악분석2(2) | 전공선택 | |
| 중앙대 39) | 글쓰기(2) | 공통교양 | 피아노 | 형식 및 분석1(2), 형식 및 분석2(2) | 전공필수 | 성악, 관현악 전공에 개설 안됨 |
| | | | 작곡 | 음악분석1(2), 음악분석2(2) 현대음악분석1(2), 현대음악분석2(2) | 전공필수 | |
| 울산대 40) | 영어읽기쓰기 (2) *영어 | 교양필수 | 피아노 | 음악분석1(2), 음악분석2(2) | 전공필수 | 성악 전공에 개설 안됨 |
| | 보고서작성 및 발표(2) | 교양선택 | 관현 | 음악분석3(2), 음악분석4(2) | 전공선택 | |
| 부산대 41) | 열린 사고와 표현(2) | 교양필수 | 성악 | 음악분석1(2) | 전공필수 | 관현타 악전공 에 개설 안됨 |
| | | | | 음악분석2(2) | 전공선택 | |
| | | | 피아노 | 분석과 연주실제(2), 음악분석(2) | 전공필수 | |
| | | | | 작곡 | 형식론 및 분석(2) | |
| 현대음악분석(2) | 전공선택 | | | | | |

| | | | | | | |
|------------|---------------------------|------|---------------|----------------|------|-----------------|
| 세종대 42) | 문제해결을 위한 글쓰기와 발표(2) | 중핵필수 | 성악/피아노/ 관현 | 음악분석(2) | 전공선택 | 전공 글쓰기 포함 |
| | | | | **음악논리 및 논술(2) | 전공선택 | |

(표4)의 교과 운용 현황을 정리해 보면, 첫째 글쓰기 교과는 필수영역에서 다루어졌으며 2학점에서 5학점으로 운용됐다. 특히 한양대의 경우는 핵심교양 영역에서 글쓰기 관련 교과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교양필수 영역(한양대의 경우 “말과 글”이 이에 속함)보다 상위의 영역이다. 그러나 한양대의 “창의적 글쓰기”(2학점)와 “비관적 글쓰기”(2학점)는 글로벌 언어와 문화영역으로서 모두 영어에 대한 글쓰기 교과였으며, 인문과 예술영역에서 “디지털 저널리즘과 글쓰기”(3학점)를 따로 두고 있었다. 영어에 대한 글쓰기는 울산대에서도 동일하게 다루어졌는데 교양필수 영역에서 “영어읽기쓰기”(2학점)를 다뤘다면 교양선택 영역에서는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학점 면에서 글쓰기에 관한 가장 많은 필수 학점을 제시한 학교는 이화여대였다. 이화여대의 경우 글쓰기 교과를 5학점 이수하여야 하는데, “우리말과 글쓰기”(3학점)를 “고전읽기와 글쓰기”(2학점)를 위한 선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둘째, 글쓰기 교과를 필수영역에서 다루는 것에 비해 음악분석의 교과 운용은 학교별 또는 전공별 큰 편차가 보였으며 1학점에서 8학점으로 운용됐다. 한 예로 음악분석이 중앙대의 경우 작곡 전공을 대상으로 4학기 간(8학점) 전공필수 과목으로 운용되는 것에 반해, 세종대의 경우는 전체 전공을 대상으로 1학기 간(2학점) 전공선택 과목으로 운용됐다. 또한 경희대의 경우는 작곡 전공을 제외하고 전공기초와 전공선택 영역에서 음악분석을 다루되 음악분석이 독립된 교과가 아니라 화성학 과목과 통합되어 있었으며,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부산대에서는 음악분석 교과가 형식에 관련

34) <http://www.snu.ac.kr/curriculum> [2018년 10월 1일 접속].

35) http://ysweb.yonsei.ac.kr:8888/curri120601/curri_new.jsp#top [2018년 10월 1일 접속].

36) http://163.180.96.142/servlets/timetable?attribute=frame_kor [2018년 10월 1일 접속].

37) <https://portal.hanyang.ac.kr/sugang/sulg.do#IUdMxMDI3OCRAxN1Z2FuZy8kQF4wJEBeTTAwNjYzMSRA XuyImOqwle2OuOuejCRAXk0wMDY2MzEkQF5lOTA2ODU5ODUyNGUwMDRhNGFmNmQ5NmQzNDQxMGZhNTY3MDVINzZiYjMmN2ZjMmRmMzU3Mjk0NzFiMGYzYjQ1IA==> [2018년 10월 1일 접속].

38) http://www.ewha.ac.kr/mbs/ewhaker/subview.jsp?id=ewhaker_050404010000 [2018년 10월 1일 접속].

39) https://www.cau.ac.kr/01_intro/status/rule/cau_rule.php [2018년 10월 1일 접속].

40) <http://music.ulsan.ac.kr/sub/info.do?page=020301&s=music&m=0203> [2018년 10월 1일 접속].

41) <https://music.pusan.ac.kr/music/16163/subview.do> [2018년 10월 1일 접속].

42) http://sejong.ac.kr/sejong/download/17_catalog.pdf [2018년 10월 1일 접속].

된 교과와 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이 “화성학” 또는 “형식” 등의 교과가 음악분석 교과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 음악분석에 관한 다각적 접근, 새로운 시도 등에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음악분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경우는 서울대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는 전체 전공을 대상으로 “음악분석1, 2”를 필수교과로 다루고 있었으며, 관악, 피아노, 이론 전공을 대상으로 “음악분석 4”까지를 전공필수 교과로 지정하므로 음악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대학에서 음악분석 관련 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공은 피아노 전공이었다. 그러나 작곡 전공을 두지 않은 울산대와 세종대를 제외한다면, 과목 수와 영역별 구분으로 볼 때 작곡 전공을 대상으로 음악분석 교과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전공을 대상으로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부산대의 경우는 현대음악에 관한 음악분석을 2학점에서 4학점까지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의 영역에서 개설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양대와 중앙대의 경우는 피아노 전공과 작곡 전공에만 음악분석 교과를 개설하고 있었으며, 성악 전공을 대상으로 한양대, 중앙대, 울산대에서, 관현악 전공을 대상으로 한양대, 중앙대, 부산대에서 음악분석 관련 교과를 개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성악 전공과 관현악 전공에서 음악분석 교육에 대한 중요성, 나아가 음악이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게 된다.

넷째, 모든 대학에서 음악분석을 논술중심전공교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세종대의 경우는 주목할 만한 교과의 운용을 보였는데, 세종대는 중핵필수 영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글쓰기와 발표”를 다루면서 전공선택 영역에서 “음악논리 및 논술”을 포함하므로 전공 글쓰기를 다룬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다시 말해 세종대는 음악분석을 전 전공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영역에서 한 학기 동안 2학점으로 다루는 것에 비해 오히려 글쓰기에 대한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대는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교과 운용을 가정할 때 가장 용이한 접근을 기대할 수 있는 반증이 된다.

이와 같이 글쓰기는 교양 영역에서, 음악분석은 전공 영역에서 중요한 교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논술중심전공교과의 목표는 이 두 영역 간을 ‘가로지르는데’ 있는 것이다. 이에 (표4)의 결과를 중심으로 음악분석을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적용을 고려할 때,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시도를 위해, 첫째 음악분석은 제도적으로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영역에서 전체 전공에 걸쳐 다뤄져야 하겠다. 둘째 과목의 전문성과 시수의 확보를 위해 “화성학”이나 “형식” 등과 통합적으로 음악분석을 다루기보다는 독립된 교과목으로 다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학습을 위한 글쓰기’로서의 음악분석은 기본적인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공에 대한 담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전공

글쓰기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음악분석의 학습을 위한 글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교과과정으로의 적용이란 ‘교양 글쓰기-전공 글쓰기-음악분석’의 순서를 밟는 것이며, 4.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수자로 하여금 수준별·단계별 접근이 가능한, 그리고 선택적이며 유동적인 적용이 가능한 과정 운용상의 편의를 둔 접근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4.3.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적용

연구의 핵심적인 논의를 앞두고,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적용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제약이 따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즉 음악분석의 교과 운용은 대학별, 전공별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실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자에 의해 그 교과목의 구성 내용, 전달 내용, 접근 방식 등이 상이한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세부적인 교육 여건들을 배제한, 학술적 입장에서 다뤄진 것임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음악분석을 논술중심전공교과로 지정하기 위한 대학의 제도적 노력이란, 대학의 교육정책을 비롯한 단과대 및 전공 교수들 간의 협의 등을 차치하고, 교재 개발에서 교수법에 이르기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학문적인 연구결과들의 축적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되는 시도들은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강의 개설을 위한 첫걸음’이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1) 음악분석 선수과목으로서의 전공 글쓰기

4.2에서는 현 커리큘럼을 유지하면서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적용을 고려할 때, 글쓰기 집중 교과목으로서의 음악분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공 글쓰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물론 전공 글쓰기의 과정은 (표4)에서의 경우들과 같이 음악분석이 개설되지 않은 전공, 혹은 음악분석이 전공선택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등 음악분석의 글쓰기 심화학습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글쓰기 집중 교과목으로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전공 글쓰기는 교양 과정의 글쓰기에 관한 강의 목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막연하여 전공 과목에서 요구하는 고유한 담론 방식을 익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⁴³⁾ 그러므로 교양 과정의 글쓰기 교과목들의 수업 목표가 ‘글쓰기’라는 행위 그 자체에 중심이 있다면, 전공 글쓰기는 전공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글쓰기에 방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 전제하는 전공 글쓰기의 수업 모형은 음악 분야 고유의 특성을 글쓰기 과정으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43) 이은숙 외 4인, “계명대학교 <전공 글쓰기>의 교수법 개발을 위한 운용과정 분석 및 제언,” 317.

은 물론이고, 음악분석을 위한 글쓰기 선수 과목으로도 예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표5)와 같은 전공 글쓰기⁴⁴⁾의 16주 강의 일정을 예시한다.

(표5) 전공 글쓰기의 강의 계획

| 단계 | 일정 | 수업내용 | 과제물 | 비고 |
|-------------|---|---|-----------------------------------|-------|
| 도입단계 | 1 | 전공 글쓰기에 대한 강좌 소개와 조 편성 |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 |
| | 2 | ‘나’에 대해 돌아보기: 자기소개서로 본 ‘나’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갖는다. | 음악과 삶에 대한 글쓰기 | |
| | 3 | 음악적 삶에 대해 생각하기: 음악과 삶에 대한 글쓰기를 발표한다. | 음악회 구성을 위한 글쓰기 | 조별 과제 |
| 비형식적 글쓰기 단계 | 4 | 구상하기와 표현하기: 조원들이 연주자가 되어 조별 음악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초대어 글, 프로필, 연주곡목 소개 등을 써본다. | 가사 만들기 | 조별 과제 |
| | 5 | 공감하기: 주어진 시들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원들 간의 공동작업으로 주어진 선율에 맞춰 새로운 가사를 완성한다. | 주어진 사례에서 문제점 지적하기 | |
| | 6 | 비판적 읽기: 주어진 글들의 비판적 읽기 과정을 통해 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글을 구성하는 방법, 내용 생성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 주어진 사례에서 문제점 지적하기 | |
| | 7 | 고쳐 쓰기: 고쳐 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쳐 쓰기의 과정과 방법을 제안하므로 자신의 글을 수정·보완한다. | 주어진 사례에서 논증 추출하기 | |
| | 8 | 논점 세우기와 논증하기: 특정한 주제에 맞춰진 논점을 중심으로 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한다. | 주어진 사례에서 논증 분석하기 | |
| 형식적 글쓰기 단계 | 9 | 중간 과제 제출: 『나를 일깨우는 글쓰기』(로제마리 마이어 델 올리보 저, 2010), 혹은 『학문의 즐거움』(히로나카 헤이스케 저, 2008)을 읽고 A4 세장 분량의 독후감을 제출한다. | 원문번역과제 | 조별 과제 |
| | 10 | 전공 관련 원문 해석하기: 주어진 영어 원문 텍스트를 번역하고 조별 비교를 통해 동일한 텍스트에 대한 다른 해석의 관점을 이해한다. | 해석된 본문에 대해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원문 다시 정리하기 | |
| | 11 | 분석 글 요약하기-주어진 분량의 텍스트 내에서 논점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축약한다. | 주어진 주제에 맞춘 학술적 에세이 쓰기 | 조별 과제 |
| | 12 | 문제 해결적 글쓰기-조별 제출된 A4 한 장 분량의 학술적 에세이를 통해 교수자의 공개첨삭 및 조별 첨삭을 실시한다. | 주어진 사례에서 논증 평가하기 | |
| | 13 | 글쓰기와 음악 연구(1): 방법론적 접근(이론서, 학위논문, 학술지 등)과 연구계획서 작성법(인용, 각주, 참고문헌 등의 작성 방법)에 대해 익힌다. | 개별 연구주제와 목차, 참고문헌 정하기 | |
| 14 | 글쓰기와 음악 연구(2): 연구계획서의 실질적인 구성(연구목적, 연구절차,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익힌다. | 연구계획서에 대한 내용점검 및 자기 평가하기 | | |
| 종결단계 | 15 | 기말과제에 대한 Q/A | 기말과제 준비 | |
| | 16 | 기말 과제 제출: A4 10장 분량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 | |

44) 이 강의 일정은 필자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전공 글쓰기 강좌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전공 글쓰기 강의 일정은 (표5)와 같이 ‘도입단계(3주)-비형식적 글쓰기 단계(5주)-형식적 글쓰기 단계(6주)-종결단계(2주)’로 구성된다. 도입단계에서는 글쓰기를 위한 예비단계로서 글쓰기의 주체인 ‘나’와 ‘조원’에 집중하는 시간이며, 비형식적 글쓰기 단계에서는 전공 관련 글을 읽고 쓰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글쓰기의 기본원리와 방법 등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때, 사례로 제공되는 예제들은 음악 관련 소재들이 전체의 50% 수준을 유지하게 한다. 중간 과제물 제출을 마치면 형식적 글쓰기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전공 관련 학술적 글쓰기가 시행되는 시기로 전공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종류의 글을 읽고 쓰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궁극의 목표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체계와 내용 구성에 대해 익히는 것이다. 끝으로, 종결단계는 연구계획서를 교수자의 최종 피드백과 자기 평가를 거쳐 편집 체제에 맞추어 기말 과제물 제출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글쓰기 단계에는 글쓰기에 관한 과제가 매주 개별, 혹은 조별로 주어지며 제출된 과제는 수업 진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례들이 되므로 학습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능동적인 수업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교수는 단계별 구상, 즉 원리-방법-연습-피드백-평가 순의 순차적 접근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글쓰기에 대한 교수의 침착지도와 피드백은 수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때 온라인상의 강좌 커뮤니티는 절대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 공간은 무엇보다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제 제출은 물론 조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공 글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은 글쓰기가 연구의 전개에 있어 근간을 이루는 요소임을 체득하게 되고, 글쓰기의 효과적인 전개방법을 이해하며 논리적 관점을 표현하기 위한 훈련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음악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전공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글쓰기 집중 교과목으로서의 음악분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인 교과 운용이며 필수적인 전개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음악분석의 학습을 위한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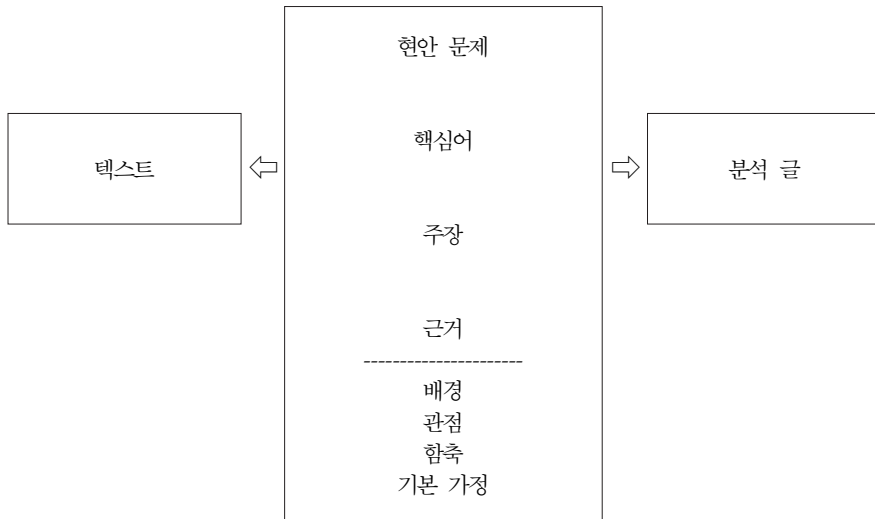
음악분석의 학습 내용과 방법에 글쓰기에 관한 방법론적 접근을 연결해 가시화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가장 부각이 되어야 할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것은 논술중심전공교과가 갖는 장점을 음악이 갖는 언어적 측면을 구체화하기 위한 음악분석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은 기호학, 서사학, 의사소통이론 등 음악의 ‘구체적인 의미’ 분석을 위해 거론되는 음악이론의 방법론들의 바탕에 ‘언어학’의 뿌리가 있음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글쓰기라는 것이 언어체계, 또 사과의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단지 일반화된 글쓰기 매뉴얼에 음악분석의 각 단계들을 대입시킨다는 것이 무가치하게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분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글쓰기의 도구로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학습도구로서 글쓰기 매뉴얼의 활용이 요구되는 것일진대, 여기서는 그중 ‘분석적 글쓰기’의 매뉴얼에 음악분석의 주요 과정들을 연결해보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분석적 글쓰기란 ‘분석’을 통해 주어진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서술하는 글쓰기로, 여기서의 ‘분석’이란 서로 얽혀 있는 것을 여러 갈래로 풀어서 그 속의 요소들이나 성질들을 낱낱으로 나누어 분명하게 하는 사고 작용을 말한다.⁴⁵⁾ 즉 분석적 글쓰기의 ‘분석’과 음악분석의 ‘분석’은 ‘텍스트(음악작품)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을 확인하고 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사고 작용’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음악분석의 과정 역시 분석적 글쓰기의 매뉴얼을 통해 ‘텍스트(음악작품)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의사소통의 측면과 ‘텍스트(음악작품)에 대한 분석적 독해력을 향상 시킨다’는 교육적 효과의 측면에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이다.

(도표2)는 분석적 글쓰기에 대한 실습 매뉴얼을 도식화한 것이다.

(도표2) 분석적 글쓰기 실습 매뉴얼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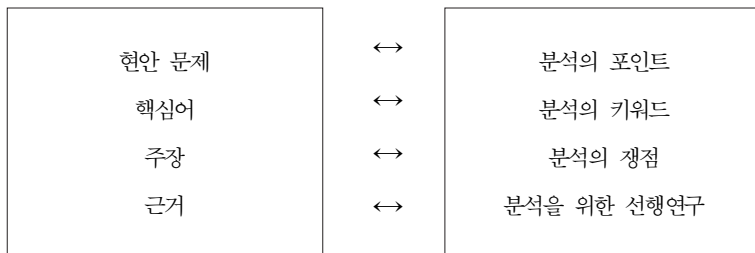


45) 원만희,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분석적/비판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실습 매뉴얼: 두 유형의 글쓰기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24 (2015), 236.

46) 원만희,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분석적/비판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실습 매뉴얼: 두 유형의 글쓰기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39.

이 매뉴얼은 상위 4개의 기본 요소와 하위 4개의 부가 요소로 구성된다.⁴⁷⁾ 이 요소들을 음악분석의 과정으로 이끌어보면, 첫째 ‘현안 문제’는 주어진 텍스트(음악작품)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문제, 즉 분석의 포인트가 이에 상응된다. 둘째 ‘핵심어’란 작품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용어들, 즉 분석의 키워드들을 말한다. 셋째 ‘주장’은 분석자가 작품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일련의 음악적 사건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 즉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근거’는 그 음악적 사건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전제들, 즉 선행연구들에 의해 이미 확인된 사항들과 관계된다. 이 매뉴얼의 기본 지침은 바로 이 4개의 요소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어 거론되는 4개의 부가 요소들은 음악작품에 표면화되어 있지 않지만 작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그 바탕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재추정해 연결해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나, 첫째 ‘배경’은 분석의 포인트를 다루게 된 맥락, 즉 스토리텔링을 가능케 한 맥락을 의미하며, 둘째 ‘관점’은 분석의 포인트를 바라보는 분석자의 서술 시점 또는 기본 입장과 연결된다. 셋째 ‘함축’은 분석자의 주장에서 암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에, 넷째 ‘기본 가정’은 분석자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로 인해 이미 성립된 내용에 상응된다. 이를 정리하면 (도표3)과 같다.

(도표3) 분석적 글쓰기의 기본 지침과 음악분석의 상관성



또한 이러한 음악분석의 주요 과정들이 분석 글로 구성되고 나면 비판적 읽기 과정을 통해 반성적 고찰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비판적 사고의 9요소(목적, 목표-현안 문제-개념-전제-정보-결론-관점-함축-맥락)⁴⁸⁾에 의해 분석 글을 판단해보고 이것이 적절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재고하

47) 원만희,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분석적/비판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실습 매뉴얼: 두 유형의 글쓰기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39-240.

48) 김영정,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4), 21-22.

게 되므로 자기 평가와 퇴고의 과정으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6) 분석 글에 대한 자기 평가

- | |
|--|
| (1) 목적, 목표: 분석 글의 목적은 분명하였는가? |
| (2) 현안 문제: 분석 글의 주제는 중요한 것이며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
| (3) 개념: 분석 글에서 사용한 개념은 분명하며 주제에 부합하는 것이었는가? |
| (4) 전제: 분석의 전제를 인식하고 규정하였는가? |
| (5) 정보: 분석 글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 (6) 결론: 추론은 정당화 가능하며 명확한 것이었는가? |
| (7) 관점: 분석 글의 관점은 유연하며 공정하였는가? |
| (8) 함축: 분석 글에 나오는 함축들에 대해 충분히 and 명료하게 언급하였는가? |
| (9) 맥락: 청자 및 독자 등의 요소를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하였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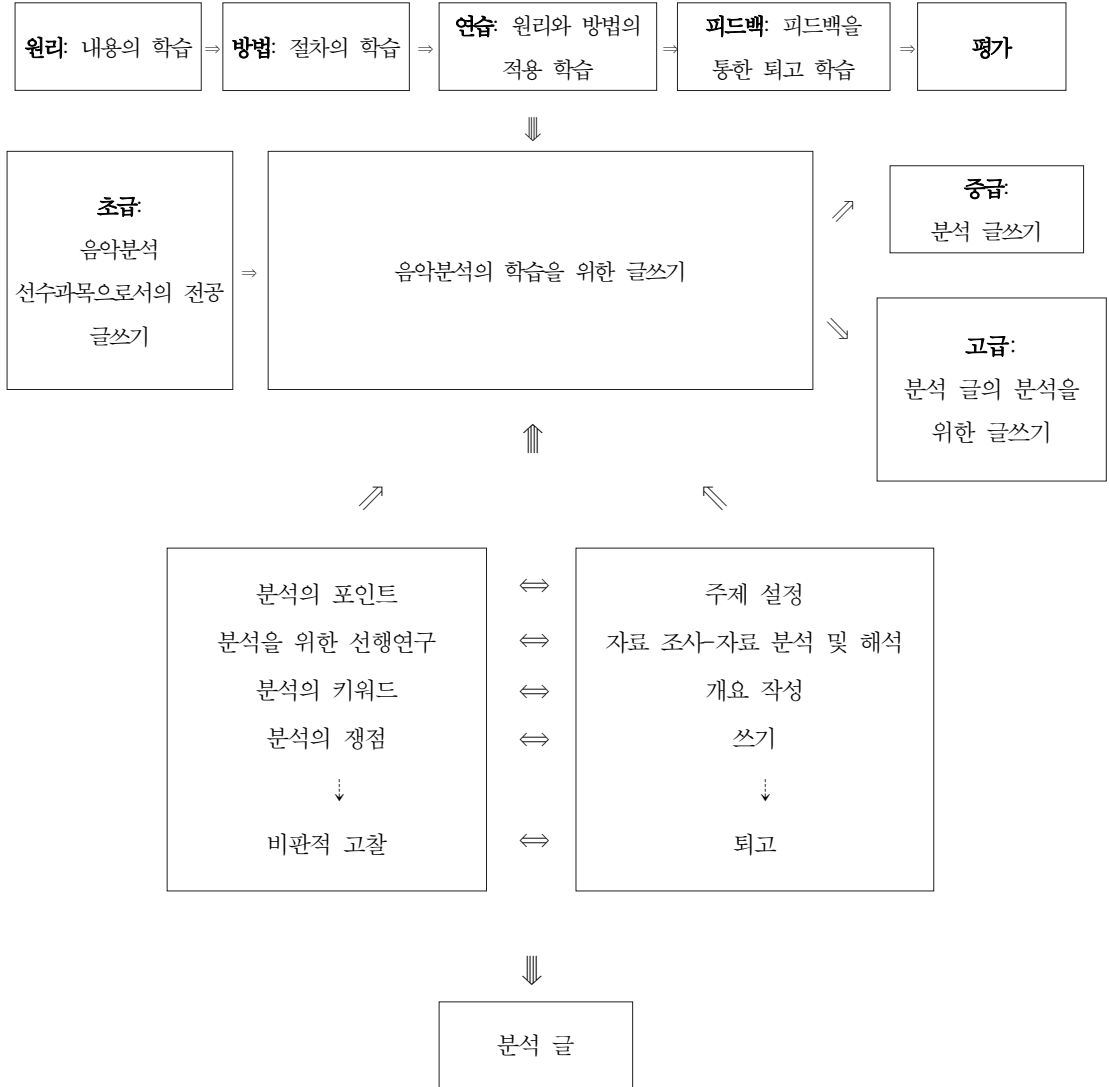
이와 같은 분석 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분석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 혹은 태도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게 하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에서 분석 글이 ‘자신의 청취 과정을 관찰시키는 방식’⁴⁹⁾으로서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데 일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분석에 이러한 분석적 글쓰기의 과정들과 비판적 고찰의 단계들을 유입시키므로 전공 영역의 학술적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학술적·비판적 사고력의 증진을 이끌며 논술중심전공교과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로의 교과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도표1)의 논술중심전공교과의 구상으로 돌아가 보자. 이 연구의 초반에서는 수준별·단계별 구상을 제시하면서 글쓰기가 음악분석의 학습 도구로 편입되기 위해서 ‘주제 설정-자료 조사-자료 분석 및 해석-개요 작성-쓰기-퇴고’라는 글쓰기의 기본 과정과 음악의 분석을 유도해내는 기본 과정들이 유사하다는 데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가정한 바 있다. 이에 끝으로 (도표4)와 같은 관계도를 제시하므로 이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도표4)는 분석적 글쓰기 매뉴얼의 4가지 기본 지침에 준하여 글쓰기의 기본 과정과 음악분석을 위한 수준별·단계들 구상을 근본적인 바탕에 두고 있다.

49) 송무경, 『음악논문작성법』, 235.

(도표4)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적용



5. 나가면서

‘연구’가 가진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가능성’의 타진에 있을 것이다. 즉 ‘가설’의 설정과 그 가설을 결과로써 확인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학문(學文)’을 학문(學問)이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이라는 학문 역시, 인접 학문들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꾸준히 그 변

화를 피하여왔다. 그러나 학문으로서 음악이 갖는 본연의 정체성은 여전히 타 학문과의 양적·질적인 연구의 격차로 대변되곤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변화하려는 시도, 타 학문과의 융합을 피하려는 음악이론 영역의 새로운 가능성 타진에 주목하였다. 즉 타 학문 분야에서도 공통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글쓰기의 과정’을 음악이론 교과로도 활용해보므로 음악이론의 학문적 지경을 넓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교수 영역을 확립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교과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학문 공동체로서 합의점을 도출해 음악이론의 새로운 범주 형성을 도모해나가고자 한 것이다.

이에 첫째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시행이라는 ‘제도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이란 한 나라의 정책, 대학의 교육관, 연구자의 연구 활동, 교·강사의 교수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재고해보자는 취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둘째 전공 글쓰기로 시작하여 음악분석으로 연계되는 논술중심전공교과를 ‘기술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음악 분야의 논술중심전공교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 것이다. 대학의 음악분석은 전공에 따라 지향하는 목표와 방법이 상이하다. 일례로, 작곡 전공의 음악분석과 성악 전공의 음악분석은 가르쳐야 할 내용도, 또 그 수준도 같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별 음악분석 교과의 운용도 한 학기의 선택영역에서 네 학기의 필수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끝으로 각각의 학습 단계는 학습자의 요구와 역량에 따라 교수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제시한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구상은 글쓰기의 근간을 이루는 전공 글쓰기 단계로부터 시작해 학습을 위한 글쓰기 단계로서 분석 글쓰기, 더 나아가 분석 글의 분석을 위한 글쓰기 단계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시행 목표를 음악 분야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글쓰기 과정을 통해 음악 분야에 관한 전공 지식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음악 분야의 담화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자기표현 능력, 융·복합적 사고 능력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소통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시행은 학술적 글쓰기에 관한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특성들을 글쓰기 과정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수업 모형이 개발되고, 이를 반영한 수업 콘텐츠와 효율적인 교수법들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글쓰기에 관한 음악영역의 후속 연구들, 이를테면 교수법 개발, 교재 개발 및 성과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평가모형과 기준 등에 대한 고찰들에 기대를 거는 바이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실제적인 수업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최근 들어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주목 받고 있는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⁵⁰⁾ 과 같은 교육 방식은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운용에 있

50) flipped learning은 ‘뒤집는다’라는 뜻의 ‘flipped’와 ‘학습’이란 뜻의 ‘learning’이 합쳐진 단어로, 우리나라에서

어 중요한 교수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는 교수자의 침삭지도와 피드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음악분석 교과와 내용상, 주어진 작품의 배경과 내용, 또 분석 글에 대한 읽기와 쓰기 등 오프라인상의 수업을 지지해 줄 온라인상의 선행학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상의 학습 내용을 적절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자발적인 선행학습으로의 유도가 이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또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서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구체적인 지도안의 설계와 적용에 대해 기대하는 바이며 플립 러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학적 아이디어와의 접목을 통한 효율적인 방법론의 구상을 기대한다.

연구는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미래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요구한다. 21세기의 대학은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다. 이제 그 변화를 따라 모든 학문의 영역들은 그 어떤 가능성의 문이라도 열어둘 때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음악이론 분야의 2차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방점을 두고 마무리를 하는 바이다.

검색어

음악이론(Music Theory), 음악분석(Music Analysis), 논술중심전공교과(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WAC), 글쓰기 집중 교과목(Writing Intensive Course: WI), 전공 글쓰기(Writing In Discipline: WID), 학습을 위한 글쓰기(Writing To Learn: WTL)

는 ‘거꾸로 학습’, ‘거꾸로 수업’, ‘역전학습’, ‘뒤집어진 수업’ 등으로 사용하며, 영어로는 ‘flipped learning’ 외에, ‘flipped classroom’ 등으로 불린다. 이는 기존의 수업을 뒤집어서 미리 집에서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수업시간에는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토론, 실험, 협력학습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교육학적 접근법을 말한다. 이민경 외 17인, 『플립러닝: 이해와 실제』 (과주: 교육과학사, 2016), 24 참조.

참고문헌

- 강성숙. “예체능 계열 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 『溫知論叢』 41 (2014): 335-368.
- 김선미. “학문적 글쓰기를 활용한 중등 음악 수업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41/2(2012): 125-146.
- 김연. 『음악이론과 분석』. 서울: 심설당, 2005.
- 김영정.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4.
- 김유진.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기악 수업 지도 방안: 바이올린 교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 김지혜. “예체능계열의 실용 글쓰기 교육 방안 -가천대학교 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4(2012): 67-94.
- 김향정. “수업비평의 관점에서 음악수업 ‘읽기’ 및 ‘쓰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9(2014): 65-85.
- 김현정. “융복합시대 이공계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 『대학작문』 14(2015): 131-161.
- 배식한. “전공연계글쓰기(WAC)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 미국 WAC 프로그램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교양교육연구』 6/3(2012): 591-626.
- 송무경. 『음악논문작성법』. 서울: 음악세계, 2016.
- 안상희. “범교과적 글쓰기(WAC)를 통한 대학 글쓰기 교육.” 『작문연구』 24(2015): 113-134.
- 양태영. “예체능계 대학생의 학술적인 글쓰기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위한 텍스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2016): 541-562.
- 원만희. “왜 범교과(WAC) 글쓰기인가?” 『철학과 현실』 82(2009): 161-175.
- _____. “전공연계 글쓰기(WAC)를 위한 교육 기획.” 『수사학』 13(2010): 191-219.
- _____.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분석적/비판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실습 매뉴얼 -두 유형의 글쓰기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24(2015): 227-258.
- 이민경, 성민경, 정주영, 김순미, 김재현, 안현효, 박호관, Patrick Travers, 변상출, 배도용, 이규환, 김수철, 차정호, 김은정, 김강연, 이행자, 김선연, 김창숙. 『플립러닝: 이해와 실제』 파주: 교육과학사, 2016.
- 이은숙·문동욱. “〈전공 글쓰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공별 수업모형 ‘스포츠마케팅학과’ 사례

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9/3(2015): 513-537.

이은숙·기도형·박창일·이은숙·최성곤. “계명대학교 〈전공 글쓰기〉의 교수법 개발을 위한 운용 과정 분석 및 제언.” 『교양교육연구』 9/4(2015): 315-340.

이지현. “글쓰기를 활용한 음악 수업 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채현경 편저. 『새 음악학: 해체, 페미니즘, 그리고 통합』. 서울: 궁리, 2007.

홍나래. “말하기와 연계한 글쓰기 수업의 효과와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우리말과 글쓰기〉 음대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연구』 31 (2013): 5-22.

Kerman, Joseph. 『음악을 생각한다』. 채현경 번역. 서울: 궁리, 2005.

_____. “1990년대 음악학.” 『새 음악학: 해체, 페미니즘, 그리고 통합』. 채현경 편저: 71-92. 서울: 궁리, 2007.

〈인터넷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Writing_Across_the_Curriculum.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s://music.pusan.ac.kr/music/16163/subview.do>.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music.ulsan.ac.kr/sub/info.do?page=020301&s=music&m=0203>.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s://portal.hanyang.ac.kr/sugang/sulg.do#!UDMxMDI3OCRAxN1Z2FuZy8kQF4wJEBeTTAwNjYzMSRAXuyImOqwle2OuOuejCRAXk0wMDY2MzEkQF5lOTA2ODU5ODUyNGUwMDRhNGFmNmQ5NmQzNDQxMGZhNTY3MDVlNzZiYjJmN2ZjMmRmMzU3Mjk0NzFiMGYzYjQ1IA==>.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s://www.cau.ac.kr/01_intro/status/rule/cau_rule.php.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www.ewha.ac.kr/mbs/ewhaker/subview.jsp?id=ewhaker_050404010000.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writing+across+curriculum&x=20&y=21>.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C%9D%8C%EC%95%85+%EA%B8%80%EC%93%B0%EA%B8%B0&x=24&y=26>.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writing+across+curriculum>

uery=%EA%B3%84%EC%97%B4+%EA%B8%80%EC%93%B0%EA%B8%B0&x=25&y=1

9.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C%A0%84%EA%B3%B5+%EA%B8%80%EC%93%B0%EA%B8%B0&x=33&y=1>

uery=%EC%A0%84%EA%B3%B5+%EA%B8%80%EC%93%B0%EA%B8%B0&x=33&y=1

5.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s://www.sejong.ac.kr/sejong/download/17_catalog.pdf.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s://www.snu.ac.kr/curriculum>.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47>.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ysweb.yonsei.ac.kr:8888/curri120601/curri_new.jsp#top. 2018년 10월 1일 접속.

http://163.180.96.142/servlets/timetable?attribute=frame_kor. 2018년 10월 1일 접속.

Music Analysis, and Writing for Analysis: Focusing on the WAC(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Programs

Won Sun Choi

This paper presents an attempt at looking at music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WAC(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The study first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implementation goals of WAC were "writing to learn" and "learning to write." It also focused on the fact that WAC was a program to change the curriculum of a subject itself via writing and sought after active learner-centric education. The present study thus set out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running music analysis as a "writing intensive course"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WAC in order to apply this educational approach as a subject curriculum in music analysis, thus holding its significance.

Music analysis is an aspect of writing in which an analysis process develops as a 'piece of writing' and include a logical and creative process of description. The methodological approach of music analysis via writing is thus accompanied by expectations for learning effects at the intensive major level to describe music in a persuasive manner based on logical thinking. The study first set its basic direction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on writing as part of its literature study approach. Second, it shed light on correlations between writing and music analysis through the academic position of the music theory area. Third, it reviewed the current management of subjects related to writing and music analysis at universities and devised a plan to realize them as WAC programs. Fourth, it suggested specific ideas for the application of music analysis as a WAC program by the level and stage.

Finally, this attempt should be interpreted from another teaching perspective to look at music theory education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integration to promote academic professionalism and communicative skills at the same time and understood as

the first step in the introduction of music analysis as a WAC program. It is partly because the management of a music analysis subject widely varies among different universities and majors in reality with different professors teaching different content in their lectures on it. It is also partly because institutional efforts to designate music analysis as a WAC program will be meaningless without the accumulation of academic research findings.

음악분석, 그리고 분석을 위한 글쓰기: 음악분석을 논술중심전공교과(WAC)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최원선

이 연구는 음악분석을 논술중심전공교과(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WAC)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첫째 논술중심전공교과의 시행 목표가 ‘학습을 위한 쓰기’와 ‘쓰기를 위한 학습’을 지향한다는 점, 둘째 글쓰기를 매개로 교과의 커리큘럼 자체를 변형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셋째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방식을 음악분석의 교과과정으로 적용해보기 위해, 음악분석의 ‘글쓰기 집중 교과목’으로서의 운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논술중심전공교과 교수·학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음악분석은 분석의 과정이 ‘글’로서 전개되는 글쓰기의 한 측면이며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서술의 한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글쓰기를 통한 음악분석의 방법론적 접근은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음악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기 위한 전공 심화 차원의 학습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방식으로서 첫째 글쓰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고, 둘째 음악이론 영역의 학문적 입장을 통해 글쓰기와 음악분석에 관한 상관성을 조명하였다. 셋째 글쓰기 및 음악분석 관련 교과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의 운용 현황 검토를 통해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현실화 방안을 구상하였고, 넷째 이를 중심으로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로의 수준별·단계별 적용에 대해 구체화하였다.

끝으로, 이 같은 시도는 학문적 전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융·복합 시대의 음악이론 교육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교수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겠으며, 음악분석의 논술중심전공교과 강의 개설을 위한 첫걸음이란 시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음악분석의 교과 운용은 현실적으로 대학별, 전공별로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교과의 내용은 실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자에 의해 상이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며, 더욱이 음악분석을 논술중심전공교과로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란 학술적인 연구결과들의 축적 없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자: 2018년 11월 02일

심사일자: 2018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11월 19일

